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흰 토끼 한 마리가 허둥지둥 들뜬 채 뛰... "토끼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뛰어나니?" "나를 매카시 의원이 쫓고 있거든..."

인혁당 사건을 비롯하여 그때 관련된 사람들이 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가가 배상해줘야 하는 돈도 이미 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재심청구가 못붙을 이...

미국에서는 매카시 선공이 한때 휩쓸다 지나갔지만, 매카시 수법은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맹위를 떨쳤...

은 과연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뒤 "검찰은 역사의 고비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

1974년 7월, 민청학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강신욱은 "이 사건을 맡게 된 뒤...

판에서 강신욱은 "이 사건을 맡게 된 뒤 나는 법은 정치나 권력의 시녀라고 단정...

"지난번에 너무나 검찰총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그에게 수억 원씩 뒷돈을 대는 스폰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변호사가 되면 또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잘 챙기는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5년 동안 변호사로서 472건...

그 옛날 서울 법대 구내에는 작은 '정의의 종' 구조물이 있었고, 거기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최근 들어 법치를 부르짖는 소리가 심상치 않다. 법치는 정의에 바탕하고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신종플루 보다 무서운 신종플루 '공포'

신종플루 국내 감염자가 6천명을 넘어 서면서 광주·전남지역사회에 공포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지나친 공포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민들이 과민반응을 보이면서 대인기피 등 시민생활 위축은 물론 폐렴과 계절 독감 관련 약품이 때 아닌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자체의 각종 축제 및 행사 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공연이나 각종 학교 수학여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신종플루는 분명 위협적인 질병이지만 지나친 공포는 금물이다. 공포심은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해 면역력 감소로 신종플루 발생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

를 타지 않을 수 없다. '신종 플루 대역행 시 임원환자 10만~15만명, 사망자 1만~2만명 추정', '10~11월 신종플루 확산 절정 예상' 등의 소식을 무책임...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능자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가 확보해놓은 타미플루 양이 예상 발병률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감은 '타미플루 쟁탈전'을 낳았다.

신종플루는 분명 위협적인 질병이지만 지나친 공포는 금물이다. 공포심은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해 면역력 감소로 신종플루 발생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

해파리 퇴치·피해 보상 정부가 나서야

해파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서남해안 일대에 출몰하고 있는 해파리가 잦아들지 않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한해 해파리로 인한 어업손실액을 2천3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을 동원한 해파리 제거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파리 피해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해파리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어구와 어망 파손 복구 비용 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피해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해파리 번식과 유류한 쪽으로 바다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파리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파리는 동중국해에서 대량 번식해 남해와 서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어구와 어망 파손 복구 비용 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상집



거짓말 소동을 뚫고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정부는 어느 정도 믿을만할까? 이미 '식상함' 얘기가 되었던 우선 후보시절의 대표적인 7·4·7 공약을 보자.

했지만 진짜 목표는 경제성장이 아닌 네오콘이 주장하는 자본에 대한 과세를 없애는 것이다.

셋째, 잘못이 드러나도 책임지는 일 없다. 내무차관의 석탄산업계 로비스트 스티븐 그라일즈가 예타지참사본쟁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임기...

중도와 실용? 믿지 말라

시 정권을 혁명적 세력으로 규정하고 부시 집권의 특징을 주시시장 하락, 기업 스캔들, 에너지 위기, 환경악화, 예산 적자와 경기침체, 테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들고 있다.

동안 교체되지 않았다. 이미 망한 언론사 임원 토마스 화이트는 거꾸로 육군 장관에 임명된다.

다섯째, 혁명적 세력의 목표에는 끝이 없다. 세금인하가 단지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낮추는 정도라고 믿지 말라.

첫째, 겉으로 내놓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 백악관 보좌관 조차 기사화를 전제로 할 때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보도를 전제로 할 때에는 정반대로 말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숨겨진 진짜 목표를 찾아내라. 세금인하가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 선전...

어쨌든 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전부 다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보험회사에 항의를 한다면 100% 책임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신재민·목포시 수감동

기고

송영철



1996년 9월 4일은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세계박람회 유치를 정부(당시 해양수산부)에 정식 건의한 날이다.

1999년 6월 14일 여수세계박람회가 국가계획으로 최종 확정된데 이어, 2001년 5월 31일 제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바다에서 미래를, 천년 전의...

모두의 어깨를 지누르고 있다. 우리의 지에 따라, 우리가 보여준 열의에 따라 박람회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박람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돌발변수와 전 세계적인 경제난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크고 작은 난관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태동

꿈을 되찾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새롭다.

하지만, 전남은 2002년 12월 3일 모나코에서 열린 제132차 BIE총회에서 '2010년 박람회 유치권'을 놓고 중국, 러시아, 멕시코와 폴란드 등과 겨룬 끝에 중국 상하이에 34대 54로 석패, 좌절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공과를 따질 겨를도 없었다. 박람회 유치가 좌절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2002년 12월 9일 세계박람회 재추진을 전남도와 여수시가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하였고 이후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계속된 결의와 행동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박람회 개최까지 2년여를 남겨둔 지금 유치확정 당시의 들뜬 분위기는 '성공 개최'라는 무거운 중압감으로 우리...

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예산감축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SOC 예산을 감축한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13년 전의 일이고, 또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동안 정말 많은 우려곡절이 있었다.

13년 전 세계박람회 유치를 꿈꾸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박람회 성공 개최'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매진한다면 여수세계박람회는 지구촌 60억 인류에게 오랫동안 잊지 않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정영철·목포시 연산동

無等鼓

지난 2003년 초 지구촌은 또 한차례 바이러스 공포에 시달렸다. 그해 2월 중국 광둥 성에서 처음 발생한 바이러스성 질병은 고열과 두통, 인후통, 기침 등 독감 환자들이 보이는 것과 비슷한 증상이었다.

그러나 새 바이러스는 일반 독감과 판이하게 달랐다.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속속 목숨을 잃은 것이다.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사스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한국인의 피해는 미미했다. 한국은 가장 선진적인 의료 체계를 갖춰 예방 및 적절한 치료로 사스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하나, 과학적으로 완전히 그 비결이 완전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었지만 김치가 사스 피해를 막는 효자로 각광 받았다.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가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어 한국인이 사스...

에 잘 버틸 수 있었다는 소문에 김치 붐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6년 후 불어닥친 신종플루 회오리에 돌 김치가 등장했다. 최근 미국 뉴욕에 신종플루를 막는 마스크가 출현했다. 단순한 부용은 마스크에 배추김치 사진과 '김치가 독감을 예방한다(Kimchi prevents flu)'는 문구가 인쇄돼 있어 흥미를 끌었다.

현지에서 마스크를 제작한 광고전문가 이재석씨는 "전 세계에 건강식품으로 공인된 김치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스가 번졌을 때 해외 언론들이 '김치가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전한 것에 주목했다"며 "신종플루 유행은 우리 건강식품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김치가 플루 바이러스를 얼마나 억제하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는는 없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플루를 이겨내려는 '김치 마스크'의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플루와 김치



'자동차 가지급금 제도' 정부가 적극 홍보해야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 제도가 있다.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보험금 가지급 제도인데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상 가지급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는 위자료나 대물 피해액의 50%와 치료비 전액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전부 다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보험회사에 항의를 한다면 100% 책임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신재민·목포시 수감동

'DVD방' 청소년 탈선의 온상 변질 우려

터기 영화 <터치 오브 스파이스>라는 영화가 아주 감동적이라고 들었다. 비디오가 게에 갖지만 시간이 지난 영화는 가져다 놓지 않는다며 DVD방에 가보려 했을지 모르다고 알려줬다.

▲정영철·목포시 연산동

벌어 쓰는 티수가 있었으며 밖에서 안을 들여다 봐도 알 수 없을 만큼 거의 밀폐돼 있었다. 흡사 밀폐된 여관방 같은 분위기였다.

▲정영철·목포시 연산동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